

보성에 세계 최대 '자연석 벽화'

소설가 조정래·화가 이종상·건축가 김원 공동
'태백산맥 문학관'에 길이 81·높이 8m
전국 조약돌 3.5t 수집 통일 염원 담아



조정래씨 이종상 교수 김원 대표

오는 10월 문을 여는 보성 '태백산맥 문학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석 벽화가 제작된다. 특히 국내 최고의 소설가, 화가, 건축가 등 3명이 공동작업을 하는데다 '고구려 고분 벽화 기법'을 살려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원로 한국화가 이종상(서울대 미대 명예교수)씨, 건축가 김원 대표(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등 국내 문화예술계의 '빅 3'로 불리는 세 사람은 최근 태백산맥 문학관(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옆 대형 옹벽에 벽화를 그리는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높이 8m, 길이 81m의 대형 옹벽에 색칠한 조약돌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붙이는, 일명 '고구려 고분벽

화 기법'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벽화 작업을 위해 이들은 지난해부터 울릉도, 제주도, 설악산, 북한 등 한반도 곳곳에서 3.5t 분량의 조약돌을 모았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벽화는 멕시코 코요아칸의 우남대학 도서관 외벽에 설치된 12층 높이의 모자이크화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제작되는 태백산맥 문학관 벽화는 크기면에서 우남대학 벽화에 견줄만하고, 자연석으로 제작된 벽화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번 벽화 프로젝트는 지난해 '태백산맥 문학관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자'는 조씨의 제의로 시작했다. 조씨의 제안으로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태백산맥 문학관을 현장 답사하며 함께 작품 구상을

했다. 이씨는 소설 '태백산맥'을 두 차례 정독하고 김씨와 벽화를 만드는 과정 등을 논의한 뒤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다. 벽화의 주제는 '원형상(原形像)-백두대간의 염원'. 독도, 백두산, 한라산, 한강, 영산강 등 국내 유명 산과 강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현재 밑그림 작업에 한창인 이씨는 오는 9월부터 현장작업에 들어가 10월 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옛 5천원권 화폐에 등장하는 울곡 이이의 초상화를 그렸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독도를 주제로 그려온 작품을 일본에서 전시하려다 "전 시장을 폭파하겠다"는 일본 우파들의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은빛 연기 19일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체조 평행봉 결승에서 유원철이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유원철은 중국 리사오핑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유원철 평행봉 '銀 착지'

여자 핸드볼 중국 꺾고 4강
야구는 쿠바 제압 예선 1위

국기별 메달 순위 (19일 21시 30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40	14	15	69
2	미국	24	24	26	74
3	영국	13	7	8	28
4	호주	11	10	12	33
5	독일	10	7	7	24
6	러시아	9	13	17	39
7	대한민국	8	10	6	24

오늘의 빅매치 (20일) (한국시각)

야구	한국-네덜란드 (12시30분)
핸드볼	남자 8강전 한국-스페인 (21시15분)
레슬링	남자 자유형 66kg, 74kg급 정영호-조병관 출전 (10시30분)

유원철의 상연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원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여야는 19일 핵심 쟁점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합의, 18대 국회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임기 개시 후 82일간 파행을 거듭하던 18대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3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단은 이날 오후 최종 회동을 갖고,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5년간 30개월 이상 최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가축법을 개정하되, 한미 최고기협상 결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부칙 2조에 이미 고시한 최고기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명문화, 기존의 한미 최고기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는 가축법 개정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미국이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합의한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과의 협상 내용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여야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총 19개의 상임위를 18개로 줄이는 한편 상임위원장 배정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 창조모임 1개'로 배분하고, 오는 26일 분회를 열어 윤리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가축법 개정안 등을 처리기로 합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자 체조 평행봉의 유원철(24·포스코 건설)이 한국에 값진 은메달을 선물했다. 유원철은 19일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체조 평행봉 결승에서 중국의 리사오핑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관련기사 2·18·19면> 유원철은 8명이 겨루는 결선에서 6번째로 평행봉에 올라 실수없이 깔끔한 연기를 선보여 16.250로 1위 자리에 올라섰지만, 마지막으로 연기를 펼친 리사오핑이 16.450의 높은 점수를 받아 은메달에 머물렀다. 지난 아테네올림픽 평행봉에서 오심으로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던 양태영(28·포스코 건설)은 4년만의 실목전에서 실수를 범하며 7위에 그쳤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만리장성을 넘어 4강에 안착했다. 한국은 이날 올림픽스포츠펠터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핸드볼 8강전에서 개최국 중국을 31-23으로 제압하

고 4강에 진출했다. 전반을 16-12로 막강한 한국은 중국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후반 3점차까지 쫓기기도 했지만, 만리니 오영란의 신들린 선방에 힘입어 8점차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은 오는 21일 오후 7시 결승 진출을 놓고 난쟁이 노르웨이와 맞붙는다. 이와 함께 한국은 같은 날 베이징 우커슈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예선 풀리그 아마추어 세계 최강 쿠바와의 6차전에서 장단 9안타를 적시에 터뜨려 7-4로 승리,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폐조의 6연승을 달린 한국은 20일 네덜란드전 결과에 관계없이 1위로 4강 토너먼트에 직행, 22일 4위팀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한편 레슬링 자유형 55kg급의 김효섭(28·삼성생명)은 8강전 연장 끝에 어렵게 패했고, 60kg급 김종대(27·삼성생명)는 첫 경기에서 탈락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社告

제34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김병술 지부장 '위험과 함께, 위험을 넘어서'

21일 광주신양파크호텔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이 강사로 나서 '위험과 함께, 위험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1일 오후 6시에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제34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병술 한국

- 일시 : 8월 21일(목) 오후 6시
- 장소 : 광주신양파크호텔
- 주제 : 위험과 함께, 위험을 넘어서
- 강사 : 김병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41

光州日報社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알고 투자하면 꿈이 커집니다

투자 첫걸음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교육까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무료 교육 서비스를 만나십시오.

